

“부처님 가르침 등불삼아 마지막까지 매진”

제28회 포교대상 시상식

공로상 원력상 등 ‘영광’

제28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거행됐다.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은 이날 공로상 및 원력상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출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은 육군3군사령부 선봉사 주지 보명 공영호 법사,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주지 보경 함현준 법사, 정갑윤 국회의원 정각회 고문, 강창일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신영호 한옥 건축가가 각각 상을 받았다. 또 성주 심원사 주지 응관스님, 윤창화 도서출판 민속사 대표, 어윤식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서울경기지부장, 김미숙 세종시공무원불자회 총무, 이두석 국제포교사, 이승표 포교사단 부산 지역단장, 우인보 의정부 영석교 교법사, 실상사 작은학교가 포교원장상인 원력상을 받았다.

이날 정갑윤 의원은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정진하겠습니다”는 수상 소감을, 강창일 의원은 “나는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들 생애는 큰스님들처럼 집을 나오고 싶다”고 말했다. 공영호 법사도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삼아 마지막까지 군불교 발전에 매진할 것”이라는 소감을, 함현준 법사는 “양적 성장이나 형식에 얽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8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을 열고 공로상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공로상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장면.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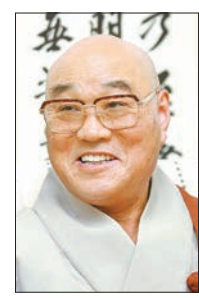
이는 불교가 아닌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30여 년간 젊은 장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공영호 법사, 백호정사와 통일정사 등 법당을 창건하고 생도들을 지도해온 함현준 법사와 종단과 국회 간 소통에 큰 기여를 하고 불자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해온 정갑윤, 강창일 의원

님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전국 주요시설 건축을 문화재급으로 조성한 신영호님, 불교출판계를 평생 이끌어 온 윤창화 대표, 공무원불자연합회를 잘 이끌어 오신 분 등 수상자 모두 공심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앞서 포교원장 지홍스님도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고 배우는 불자들이 늘어날 때 부처님 가르침은 널리 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제14회 대원상 포교대상 ‘월서스님’ 선정

특별상 금강스님·바른법연구원
각 부문 수상자 발표…11일 시상



제14회 대원상 포교대상에 천호월서회 망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원로의 월서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지난 2일 제14회 대원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원상 출가부문 대상 수상자인 월서스님은 은사인 금오스님의 유지를 이어 청정 승단 수호와 선불교 정통을 확립해야 한다는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포교와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또한 지난 2012년 국제구호단체 ‘천호월서회망재단’을 설립해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등지 오지마을 학교 개보수 및 교과서, 학용품 등을 지원했다. 또한 불교대학에 컴퓨터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자비나눔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출가부문 특별상을 차지한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은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행-참사람의 향기, 쾌불재 등 다양한 수행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대인들의 마음 안정과 사회통합의 역할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재가부문 특별상에는 바른

법연구원(이사장 김원수)과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장려상에는 녹운회(회장 김영희)가 각각 선정됐다. 바른법연구원은 불교 대표 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지난 17년 동안 불교의 자비나눔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녹운회는 동산불교대학 1기생 20여 명이 결성한 봉사모임으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콘텐츠대상 우수상에는 오수진 작가의 회화(메인팅) ‘Manda_La..명상의 시간’, 장려상에는 불교포커스의 팟캐스트 ‘이미령의 책잡히다’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대원상 대상은 상금 1000만원, 우수상은 700만원, 특별상은 500만원, 장려상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2시 서울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다. **허정철 기자 hic@ibulgyo.com**

“현대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좋은 작품 선물”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

본지 ‘한전부지 매각’ 우수상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언론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됐다. TBC 대구방송이 제작한 2부작 ‘무문관’이 대상에 선정됐으며, 본지 박봉영·홍다영 기자의 ‘봉은사 한전부지 매각사건’이 신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포교원장 지홍스님, 총무부장 지현스님,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각각 KBS의 ‘하늘에서 본 암자’가 방송부문 최우수상을, 범보신문의 연중기획 ‘불자답게 살자’가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BBS의 ‘붓다한집 시즌1 쇼미 더 붓다-랩하는 스님들’이 뉴미디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정일태 KBS보도본부 해설위원이 불교언론인상, 버디필름의 영화 ‘Bring Home-아버지의 땅’과 월간 불광의 ‘월간 불광 500호’가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무부장 지현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문명의 혜택과 물질의 편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본지 박봉영·홍다영 기자의 ‘봉은사 한전부지 매각사건’ 보도로 신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재호 기자

리가 더해질수록 인생과 정신의 삶은 오히려 더 적박해지는 현 시대의 풍조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실히 전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역할”이라며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좋은 작품들을 선물해 주시길 바라며 방송부터 신문, 뉴미디어, 영화,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자부심 넘치는 성취를 이루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장 정안스님은 “수상자 여러분의 공덕은 각박한 현대인들의 삶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환한 등불이 될 것이며, 언론계 뿐 아니라 우리 불교문화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수상자들을 치하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한국불교기자상 후보 접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는 오는 14일까지 2016 한국불교기자상과 불교언론인 장학금 후보를 공모한다. 불교언론의 질적 향상과 기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불교기자상은 대상과 기획·해설부문, 취재·보도부문에서 각 1명씩 선정한다. 불교기자협회 정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 2015년 11월1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활동공적이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지원서와 관련 서류 3부를 작성해 본인이나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불교기자협회 사무처로 제출하면 된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세계유산등재 대상 ‘한국의 전통산사’ 중 봉황산 부석사 염서.

‘염서로 보는 한국의 전통산사7’ 세계유산등재추진위 염서·사진집도 발간

중단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전통산사를 사진집과 염서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는 대흥사, 마곡사, 법주사, 봉정사, 부석사, 선암사, 통도사 등 ‘한국의 전통산사’ 7개 사찰을 소개하는 염서 및 사진집을 최근 발간했다.

염서는 사찰별로 사진 1컷씩 총 7컷을 선정해 세트로 돼 있으며, 사진집은 약 100컷의 사진을 △산사의 사계 △산사의 성보 △산사의 수행과 삶 등으로 분류해 ‘한국의 전통산사’의 자연, 유형유산, 무형유산을 소개한다. 추진

위는 “한국의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세계유산적 가치가 잘 드러나는 사진을 담았다”며 “등재신청서를 보완하는 부록자료 및 ‘한국의 전통산사’를 홍보하는 기념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전통산사’는 2014년 8월 6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위원장으로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발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27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 결과,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조건부 선정됐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겨울철 눈폭탄, 밴트랙 제설기로 걱정 끝!

수많은 사찰에서 큰 트랙터를 선정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밴트랙은 문제없이 해결합니다. 그 이유는 트랙터 저상 설계로 지면의 접지력을 높여 겨울철 눈길에도 미끄러짐이 없게 안전운전이 가능하며 무게중심이동시스템이 장착되어 작은 마력으로 100마력 이상의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저희 밴트랙은 경사가 심한 사찰 진입로, 주차장 제설에 꼭 필요한 제설기입니다. 사찰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무료데모시연회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HP 가솔린 트랙터 4500P



22HP 디젤 트랙터 3400Y



제설 브러쉬 HB580



스노우 블로워 KX523



도저 블레이드 KD722



V-블레이드 KV552



염화칼슘살포기 SA250



터빈 블로워 ET200



(주)밴트랙 코리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62 나동
TEL : 033)746-3999 FAX : 033)746-3357 E-Mail : ventrac@hanmail.net



QR코드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62 나동 제설영상보기



조달청 등록 업체



한국골프대학 협력 업체

보다 자세한 제품의 정보는 WWW.VENTRA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